

# 광주시 영구임대 1200호 건립 속도낸다

##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 주월동 288세대 공사 재개

## 산정·농성동 912세대 올 준공

광주시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1200호 건립 사업'이 최근 주월동 건설현장의 대체 진입도로가 확보됨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임대주택 1200세대 건립을 목표로 착공했으나 주변 주민들

의 민원으로 공사지연 등 큰 차질을 빚어 왔다.

시는 최근 주월동 건설현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 진입 방안을 수정해 도시공사, 남구와 협의해 푸른길공원 일부를 대체 진입도로로 일시 사용키로 해 주월동 영구임대 288세대 건설 공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월동 288세대는 이달에 공사를 재개해 내년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남2지구 산정동의 414세대와 농성동(옛 서부경찰서) 부지의 498세대는 올해 하반기 분양을 목표로 공사가 순

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산정동과 농성동 현장 공정률은 각각 67%, 76%로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반기 912세대가 준공된다.

'영구임대주택 1200호 건립 사업'은 국비 800억원 등 총 사업비 940억원을 투입해 광산구 하남2지구 산정동 등 3곳에 영구임대주택 1200세대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협약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생활권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저소득 시민의 생계현장과 멀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심지 생활권내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기존 주민들의 건립반대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

혀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영구임대 주택 1200호 건립사업'이 도심에 생활기반을 두고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는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윤정권 건축주택과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사업지 주변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영구임대주택 1200호 사업이 도심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문화생활 공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상무소각장 대체 '연료전지 발전' 재추진

## 민간업체 20년 사용 뒤 복구...내달 24일까지 공모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대체 연료전지(代燃熱源)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청, 광주 가정법원 등 상무 신도심 내 26개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 1곳에 공급할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24일까지 참여할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받는다. 연료전지(燃料電池) 발전사업은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이다.

발전규모는 27.5MW/h, 연간 10만Gcal의 열원을 생산해 상무지구 내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고 나머지는 판매한다. 민간업체는 20년간 사용한 뒤 원상 복구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건설자본 투입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공모가 불발로 그쳤다. 여기에 연료전지 사업 말고는 적당한 대체업체가 없다는 데 광주시의 고민이 크다.

이번 연료전지 민자유치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하면 시의 예산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에 뛰어들어 업체가 결정되면 곧바로 협상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

## 광주 지하철 승객 10명 중 9명

## 교통카드 이용...역대 최고치

광주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10명 중 9명 이상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승객 이용 현황 분석 결과 교통카드 이용률이 91.1%를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 청소년, 어린이 등 전 연령대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여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회권 이용률은 전년대비 4.21% 포인트 감소한 8.85%로 떨어졌다.

공사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 등 타 교통수단간 환승 시 무료·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이용률 증가의 이유로 꼽고 있다.

또한 1회권에 비해 할인혜택이 있어 저렴하고,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세제 혜택이 있어 경제성을 추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명 살리는 4분 광주시 소방학교는 최근 구급실습실에서 소방학교 전 교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 제공>

## 직장서 '행복한 가정' 무료 강좌 받으세요

##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찾아가는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운영한다.

기업·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이번 교육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병행을 위한 '일·가정 양립교육', 부부·부모 간의 의사소통 방법, 갈등 해결을 위한 '부부·부모교육' 등 3가지 분야의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2시간 이내이며, 기업·기관에 파견된 전문강사가 무료로 진행된다.

가족친화 직장교육은 여성가족부 시행 '가족친화인증'의 심사자료로, 이번

교육을 받은 기업·기관은 인증 심사 시 가점 등으로 인정돼 인준 획득에 도움이 된다. 교육 대상은 가족친화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28일부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oman.gwangju.go.kr) 가족친화인증-공지사항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city.go.kr) 시정소식-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rainbow0656@korea.kr) 또는 팩스(062-613-7969)로 교육 주제와 일정,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062-613-7980).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2곳 운영

## 미즈피아·빛고을여성병원

여성장애인이 편리하게 의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2곳이 이달부터 진료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최근 미즈피아병원과 빛고을여성병원에서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과의 협력을 통해,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대표, 관할 보건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가 지정·운영하는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을 위해 휠체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성장애인 진료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2015년 민·관합동워크숍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 지정 문제를 공론화했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단기 추진과제로 채택, 지난해 7월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검진대, 휠체어용 체중계, 이동식 리프트, 전동식 수술대 등 의료장비와 화장실, 진료실 등 편의시설을 병원 실정에 맞게 확충토록 지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발암물질 유출' 하남산단 20곳 토양오염 추가 조사

## 광주보건연, 총 115곳 대상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3월부터 9월 말까지 광주시 소재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어린이놀이시설지역 등 12개 지역 115개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한다.

광주시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지역을 조기 발굴해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95개 지점에 하남산단에 위치한 오염 우려 업체와 업체 주변 등 20개 지점을 추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남영전구 수은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과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유출, 도금업체 화재로 보관 중 이던 도금 폐수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산업단지에서 크고 작은 환경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토양 시추장비를 동원, 콘크리트 등으로 덮여 있어 조사하기 어려웠

던 공장과 인근의 토양오염 정도를 깊이 별로 조사하기로 했다.

토양오염조사는 각 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해당 사업장이 속한 구청에서 오염 원천자에게 토양 정밀조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명령과 오염토양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는 원광석, 고철

등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3개 지점에서 중금속인 아연, 구리, 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해 해당 자치구에서 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으며,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석진 폐기물분석과장은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오염된 지하수를 깨끗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오염우려 지점에 대해 오염실태를 조기 발굴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나주, 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나주호 휴양림 / 들레길 진행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